

# “구급대원 꿈꿨는데...” 광주 여고생 유가족 ‘오열’



6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장례식장에 전날 광주 도심에서 흉기 습격을 당해 숨진 고등학교생 A양(17)의 빈소가 마련됐다.

## 한밤중 살인사건 피해자 빈소·사고 현장 추모 발길 시민들 “꽃다운 나이 가슴 아파...안전 대책 마련을”

“일어나선 안 될 범죄가 발생했네요. 한창 꽃을 피워야 할 나이인데 안타깝습니다.”

6일 오전 10시,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장례식장. 지난 밤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해자 A양(17)의 빈소는 비보를 듣고 달려온 가족과 지인, 친구들의 오열로 가득 찼고, 입구에는 근조화환이 즐비해 놓였다.

A양의 어머니는 “이제 내 딸 어떡하느냐”며 눈물을 쏟았고, 유족들은 영정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검은 옷을 입은 지

인들이 조문을 마치고 돌아서자, 참고 있던 어머니의 통곡이 빈소를 메웠다. 조문객들 역시 밖으로 나와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또 다른 조문객은 “구급대원을 꿈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고 현장에도 많지는 않았지만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지난 5일 오전 0시10분, 장모씨(24)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A양의 잠반이 떨어진 인도에는 핏자국이 흩과 풀로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당시

의 참상을 떠올리게 했다.

현장 인근 나무에는 국화 세 송이가 가리려 놓여 있었다. 순찰 중이던 광산경찰서 경찰관 3명은 현장을 살핀 뒤 묵념하고 자리를 떠났다.

잠시 뒤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한 시민은 발걸음을 멈추고 국화를 바라보며 “안타깝다”고 속삭인 뒤 고개를 숙였다.

교육계에 종사한다는 한 시민은 “어린 이남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더욱 안타깝다”며 “남은 가족들이 잘 이겨내길 바란다. 학교와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모씨(50·신창동)도 “학교에서 자녀가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고2 딸을 둔 부모

로서 길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동 동선을 수시로 확인하고,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가동의 한 주민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이런 일을 당해 안타깝다”며 “범인 신상공개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장모씨(24)가 휘두른 흉기에 귀가 중이던 A양이 숨졌다. 장씨는 인근에 있던 또 다른 고등학교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

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경찰, 20대 남성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 구속영장 신청...사이코패스 검사·심의위원회 준비 착수 시교육청, 피해 학생 Wee 3단계 심리·정서 지원 체계 가동

어린이날 새벽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씨(24)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7일 또는 8일 열릴 전망이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증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부·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준비에 착수했다.

공개가 결정될 경우 이번 사건은 해당 법 시행 이후 광주 지역 첫 사례가 된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교생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서 들러온 구조요청을 듣고 접근한 또 다른 학생 B군

(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늦은 밤까지 한 스터디 카페에서 친구와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로 보고 있으나, 계획범행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장씨는 범행 전 현장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와 두 차례 이상 마주친 뒤 A양을 1차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직후 승용차와 택시를 번갈아 이용해 도주한 점, 범행 장소가 주거지 인근으로 지역에 익숙한 곳이라는 점도 계획범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범행 후 무인세탁소에 들러 피가 묻은 상의를 세탁한 후 다시 입었고, 스스로 휴대전화 전원까지 끄는 등 증거 인멸 행위를 했던 것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날 오전 광산경찰은 장씨가 “범행에 사용한 뒤 버렸다”고 주장하는 흉기를 절단지구 내 한 공원 주차장에서 발견했다.

흉기가 확인된 장소는 범행 장소나 장씨의 주거지와는 연관이 없는 곳으로, 타고 간 차량과 함께 흉기도 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사용한 흉기의 길이는 21cm로, 일반적인 과도형태라고 설명했다.

광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경찰은 장씨에 대한 신병 구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교생 2명이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지역 사회 불안이 확산되자 광주시교육청이 추가 대응에 나섰다.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적용, 치료비·생계비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Wee클래스·Wee센터·병원형 Wee센터로 이어지는 3단계 심리·정서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적십자, ‘브레드세븐’ 협업 브랜드빵 만들기 6일 광주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에서 열린 ‘브레드세븐’ 협업 적십자 브랜드빵 개발 행사에서 봉사원들이 적십자 시그니처빵을 만들고 있다. 이날 ‘브레드세븐’은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베스트빵인 허니버터 마들렌과 포장 재료에 적십자 표창 및 캐릭터를 활용해 적십자 시그니처 빵을 제작했다. ‘브레드세븐’은 제과제빵 명장 마칠석 적십자봉사원이 대표로 운영하는 업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완도 냉동창고 화재 관련 업체 대표 등 구속 전남경찰, 안전조치 없이 토치 작업 중 발화 결론

지난 4월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와 작업자 등 2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6일 업무상과실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A씨(60대)와 작업자 B씨(30대·중국 국적)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 안전설비와 안전 교육 없이 채 B씨에게 바닥재 제거 작업을 지시했다. B씨는 LPG 가스 토치를 이용해 바닥재 제거 작업을 하다 불을 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합동 감식과 CCTV 분석 등을 벌인 결과 이번

사고는 화재 안전설비 배치 및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LPG 가스 토치로 가열하며 바닥재를 제거하다 발생한 불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밀폐된 창고 내부에 쌓여 있던 예폭시와 우레탄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서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되는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무허가 건축물이 확립에 따라 경찰은 완도군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원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